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78호 【루계 제24491호】 주체103(2014)년 3월 19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 교직원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 교직원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최룡해동지,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 변인선동지, 서홍찬동지, 김수길동지, 김명식동지, 리병철동지, 김영철동지, 조경철동지, 박태수동지, 장동운동지, 한광상동지, 황병서동지와 인민군장병들이 경기를 보았다.

권총과 자동보총으로 제정된 거리와 시간에 목표를 쏘아 맞힌 점수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게 되는 사격경기장은 미제승냥이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하여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사격경기가 시작되자 구령을 받고 화선을 차지한 사수들은 침략으로 생겨나고 침략으로 비육해진 침략의 원흉이며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의 가슴팍에 멸적의 총탄을 쏘아박는 심정으로 방아쇠를 당기였다.

사수들이 목표를 정확히 명중할 때마다 관람자들속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사격경기를 자주 조직하는 목적은 사격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백발백중의 명사수들로 준비시키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그 생활력이 오늘 경기에서 뚜렷이 발휘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 교직원들의 사격경기성적이 얼마전에 진행한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성적에 비해 높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인민군대에서 당의 의도대로 사격훈련의 된바람을 일으키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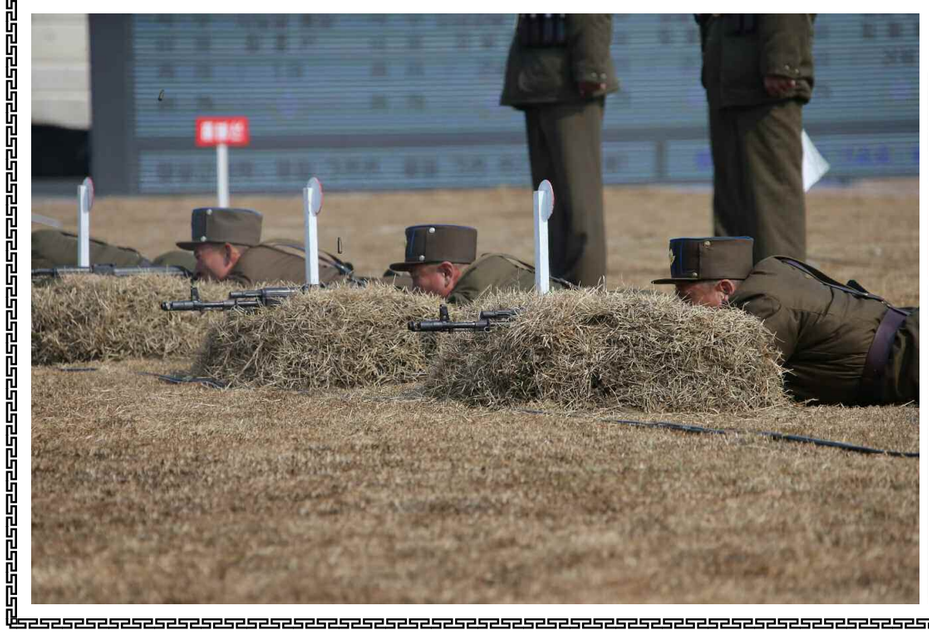
김책항공군대학이 권총, 자동보총 사격경기에서 모두 이김으로써 종합우승을 쟁취하였다.

사격경기총화와 시상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사격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사격경기를 진행한 참가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강도높은 훈련으로 낮과 밤을 이어감으로써 분별없이 날뛰는 미제침략자들이 목숨보다 귀중한 내 조국강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정의의 총대, 복수의 총대로 원쑤들을 씨종자 하나 남기지 않고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결사의 맹세를 다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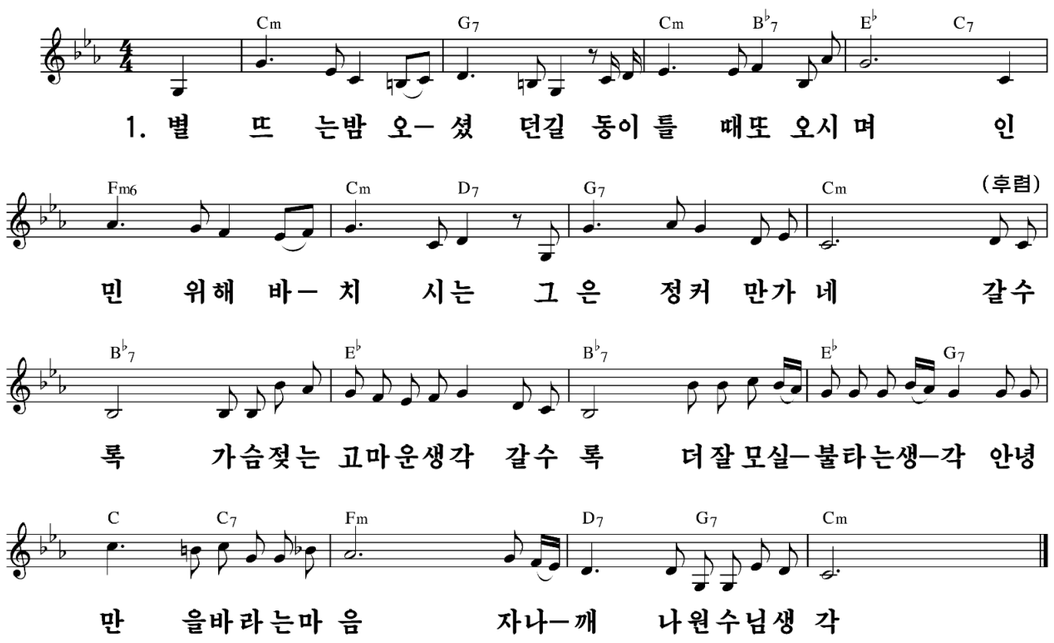
본사정치보도반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작사 차호근
작곡 안정호

정서적으로 (♩=66)



2. 만나보신 사람마다 아쉬움이 있을세라
주신 사랑 또 주시며 심혈을 다하시네
(후렴)

3. 천만자식 꿈과 리상 모두 안아 꽃펴주는
그이 품은 우리의 집 인민의 정든 요람
(후렴)

혁명일화총서
《김일성일화집》 제1권 출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혁명일화총서 《김일성일화집》 제1권을 출판하였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탁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걸출한 수령이시며 불세출의 위인, 인류의 대성인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혁명생애에는 그이께서 지니신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전하는 일화들이 무수히 아로새겨져있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만사람의 끝없는 흠모와 경탄을 불러일으키며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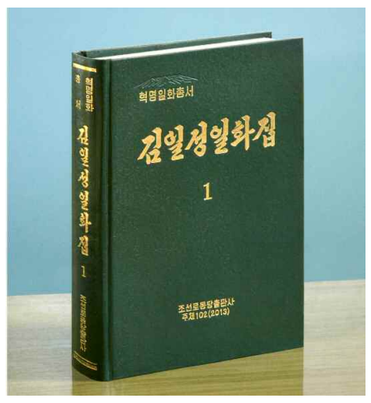
《참으로 김일성동지는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총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80여성상의 영광스러운 혁명생애에 아로새겨진 수많은 혁명일화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련속권으로 수록하고있다.

일화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자신의 생애에 대하여 회고하신 자료들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수령님을 감회깊이 추억하신 내용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목격한 일가분들과 연고자들의 회상자료들에 기초하여 서술되였다.

혁명일화들을 리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들도 함께 편집되였다.

이번에 발행된 제1권에는 주체1(1912)년 4월부터 주체15(1926)년 6월까지의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 혁명일화들이 4개장으로 구분되여있다.



제1장 《유년시절》에는 《귀인이 내릴 고장》, 《할아버님의 꿈이야기》, 《〈만경대의 해님〉》을 비롯하여 천출위인이신 우리 수령님의 탄생과 관련한 일화들과 그이께서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남달리 뛰여난 천품을 보여주신데 대한 일화들이 서술되여있다.

《만경봉의 무지개잡이》, 《마사진 축음기》, 《잠자리에서 외워드리신 편지》, 《제일 믿음직한 〈련락원〉》 등에는 부모님들의 혁명적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신 우리 수령님의 어린시절이 함축되여있다.

제2장 《타향에서 타향으로》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떠나 림강과 팔도구에서 생활하시는 과정에 남기신 일화들이 수록되여있다.

《나루터에서의 림기응변》, 《11살이면 사내대장부》, 《그림에 담으신 백두산》 등에는 수령님께서 나라잃은 민족의 설음을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시며 열렬한 조국애와 원쑤에 대한 증오심을 간직하시고 아버님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우신 사실들이 담겨져있다.

12살 어리신 나이에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 고향 만경대에 나오신 내용과 조국을 찾기 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굳은 맹세를 안으시고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력사적사실을 반영한 일화들이 제3장 《창덕학교시절》에 편집되여있다.

《〈일어독본〉이 된 〈국어독본〉》, 《동무들을 끄는 특별한 재간》, 《창덕학교 축구주장》을 비롯한 혁명일화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김형직선생님의 뜻을 따라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시며 조국과 인민의 참된 아들로 성장하신 내용을 보여주고있다.

제4장 《무송에서》에는 《크게 감동된 중국인교장》, 《개교식날에 울린 환호성》, 《벽돌집과 〈망국노〉》, 《첫 승리》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송제1소학교시절에 소년정치활동가로 명성을 떨치신데 대한 사실을 전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중의 일부가 수록되여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 두자루의 권총을 고귀한 유산으로 넘겨받으시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는데 모든것을 다 바치실 뜻을 더욱 굳히신데 대한 내용도 이 장에 반영되여있다.

도서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재부로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장엄한 력사적진군을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가 11일 도이췰란드의 베를린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토르스텐 쇠비츠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 국제준비위원회가 13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결성과 관련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결정서가 발표되였다.

결정서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한 국제준비위원회를 결성하며 준비위원회가 정치문화행사들을 다채롭게 조직할데 대하여 지적되여있다.

또한 집행서기들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총서기 미하일 빤첸꼬와 우크라이나 《선군의 보검》 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니꼴라이 뽈리슈크가 선출되였다고 밝혀져있다.

* *

태양절경축 마쟈르준비위원회가 13일 부다뻬슈뜨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마쟈르로동당 위원장 튜르매르 쥴라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3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혁명생애를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 설

경공업전선에서 인민생활향상 대진군의 포성을 크게 울리자

오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은 우리 당과 인민의 주되는 투쟁과업으로 되고있다.

전당, 전국, 전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신 1돐을 맞이하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경공업대회는 나라의 경공업발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리정표를 아로새긴 의의깊은 대회였다.

지금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보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경공업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선구자가 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하여놓으신 경공업의 튼튼한 토대가 있으며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인민이 있는 한 경공업발전에서는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 인민들은 반드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될것입니다.》

경공업은 인민생활과 직접 잇닿아있는 중요한 부문이다.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소비품들이 생산되는 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다.

인민생활향상대진군에서 경공업전선의 중요성을 명철하게 꿰뚫어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우리 조국의 푸른 하늘에 전쟁의 구름이 시시각각 몰려오고있는 엄혹한 시기에도 전국경공업대회를 마련해주시고 경공업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여기에는 경공업전선에서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포성을 크게 울리고 경공업에서 타오른 혁신의 봉화가 경제전반에 새로운 비약의 거세찬 불길을 지피는 불씨가 되게 하시려는 숭고한 의도가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속에서도 경공업발전을 위한 투쟁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워 경공업발전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소비품생산과 관련한 문제도 수시로 알아보시고 필요한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주시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의 생산문제에 앞서 로동자들의 생활문제부터 료해하시고 로동자합숙을 훌륭하게 일떠세울수 있게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소식은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마음쓰시는 인민생활향상의 전구를 당앞에, 인민앞에 끝까지 책임지려는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정과 정신력은 천백배로 분출되였다.

지난 1년간 경공업전선의 일터마다에서는 혁신의 기상이 약동하였다.

경공업부문에서 생산정상화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여느때와 다름없는 조건속에서도 맡겨진 소비품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한 공장, 기업소대렬이 크게 늘어났다.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이 높아지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가 더 높은 수준에서 추진되였으며 새 제품개발을 위한 새로운 생산공정건설이 진행되여 소비품생산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전국경공업대회정신을 구현해온 투쟁기간은 비록 길지 않지만 경공업전선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경공업전선에서 대고조의 포성을 더욱 세차게 울릴것을 바라고있다. 당의 의도대로 경공업전선에서 비약을 일으켜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우리의 혼연일체를 더욱 철통같이 다질수 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경공업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문제에서 끝장을 볼 때까지, 인민들이 먹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여 방방곡곡에서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우렁차게 울려나올 때까지 몸이 열쪼각, 백쪼각나는 한이 있더라도 완강하게 싸우는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척후대가 되자, 이것이 경공업전선에 차넘치고있는 비상한 각오이고 열의이다.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밝혀주신 투쟁전략과 목표를 전진과 비약의 무기로 틀어쥐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상화의 우렁찬 동음을 울려 갖가지 인민소비품이 쨍쨍 쏟아져나오게 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여 마련해주신 경공업의 그쯘한 토대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결론에서 승리의 주로를 따라 질풍같이 내달릴수 있는 이 훌륭한 롱마를 잘 타기만 하면 경제강국의 령마루를 단숨에 점령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공업공장의 일군들과 생산자들의 심장속에 어떻게 하나 제힘으로 공장을 돌리고 생산을 정상화하겠다는 자력갱생의 정신이 꽉 들어차면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우렁차게 울려나갈수 있다.

지난해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원료와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전략을 세우고 확대재생산을 힘있게 벌려 성앞에 맡겨진 공업총생산액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생산정상화문제는 자금이나 원료, 자재문제이기 전에 바로 사상문제이라는 귀중한 경험을 시사해주고있다.

인민소비품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실현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의 자원과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경공업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화학공업부문이 맡고있는 책임과 역할은 참으로 크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여러가지 화학섬유와 자연섬유, 기초화학제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민소비품생산기지들에 더 많은 원료, 자재를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단위들에서도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경공업발전의 종자로 틀어쥐고 예비와 가능성을 모조리 동원리용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원료와 자재문제를 어떻게 하나 자체로 해결하면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경공업발전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단천지구광업총국을 비롯하여 화학, 석탄, 전력 등 련관단위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분발하여 나서야 한다. 단천지구광업총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생산을 활성화하고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나가야 한다. 련관단위들에서도 인민생활을 함께 책임졌다는 립장을 가지고 경공업에 필요한 전기와 석탄, 화학제품과 철강재, 목재를 비롯한 원료, 자재들을 무조건 생산보장하고 우선적으로 수송하며 경공업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어 소비품생산기지마다에서 우렁찬 동음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지방공업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급속한 발전을 이룩해온 지방공업은 1970-1980년대만 하여도 전국적인 소비품생산액의 절반이상을, 현물지표로는 70%이상을 맡아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는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지방공업의 위력을 다시한번 떨치는 중요한 사업이다.

모든 시, 군들에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미 꾸려져있는 지방산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한다.

특히 지방산업공장들에서 한가지 제품을 생산해도 자기 군을 상징할수 있는 제품, 자기 단위의 얼굴이 뚜렷한 제품생산에 힘을 넣어야 한다. 지방공장제품의 질을 홀시하는것은 인민관이 바로서있지 않는 표현이다. 일군들부터가 자기 군제품의 질을 중앙공장의 수준, 나아가서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을 때 지방공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자기 단위를 상징할수 있는 소비품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중앙과 지방, 생산협동조합 할것없이 모든 단위에서 떨쳐나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어디서 그 무엇이든 총동원하여 소비품생산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력사적인 창성련석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투쟁을 전사회적, 전군중적운동으로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때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될것이다.

경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우리의 경공업을 하루빨리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겠다는 야심만만한 투지와 배짱을 안고 현대화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조선사람의 자존심으로 세상을 굽어보고 조선사람의 지혜와 슬기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자신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분발하고 혁신할 때 우리의 경공업을 전면적으로 현대화된 세계적인 경공업으로 전변시킬수 있다. 최근에 인민군대안의 경공업공장들에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훌륭히 실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이 공장들의 경험은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우리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사고하고 실천할 때 어디서나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 투쟁의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경공업을 세계선진수준으로 하루빨리 올려세우자면 과학기술을 경공업발전의 생명선으로 여기고 어디서나 누구나 착상하고 발명하고 창조하는 과학기술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비록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 생산협동조합이라고 하여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앞선 단위와 경쟁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달려나갈 때 우리의 상표가 붙은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우리의 질좋고 훌륭한 제품들로 상점들을 가득 채울수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다고 하여 저절로 질좋은 제품이 쏟아져나오는것은 아니다. 생산기지마다 단위의 특성에 맞게 새 제품개발전략이 뚜렷해야 하며 생산자대중의 지혜와 열정이 합쳐져야 한다.

최근 새 제품개발속도를 비상히 높여 인민들의 관심을 끌고있는 단위들이 많이 늘어나고있다. 선흥식료공장만 놓고보아도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개발에 너도나도 떨쳐나 제품갱신주기를 부단히 줄이고있다. 일부 몇가지 품종생산을 늘여 액상계획이나 맞추는것이 아니라 품종을 대폭 늘이고 수요에 따라 생산을 확대해나가는 기업전략은 공장의 부흥을 안아오고있다.

이것은 경공업제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자면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일본새에서부터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군들은 인민생활을 직접 책임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언제나 자각하고 인민의 요구, 인민의 목소리에 무한히 성실하며 생산수자로가 아니라 인민의 평가로 자기 사업을 총화짓는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은 곧 사회주의수호전이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조건타발을 앞세우면서 우는소리나 하는 사람은 단순한 패배주의자가 아니라 당중앙결사옹위정신이 없는 사람, 사회주의수호정신이 없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은 오늘의 총진군대오에 설자리가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경공업부문에 주신 간곡한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투적과업을 이를 악물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존엄높은 당중앙의 절대적인 권위를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번지도록 하며 자기의 뼈를 깎아서라도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한다.

경제부문의 지도일군들은 경공업에 대한 경제조직사업과 지도를 짜고들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경공업의 굳건한 토대가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우리는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위대한 사상과 불패의 군력으로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을 사회주의부귀영화가 활짝 꽃피는 인민의 락원으로 빛내여가는 오늘의 총돌격전에 과감히 떨쳐나 인민생활향상에서 기어이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고 승리의 포성을 울려야 한다.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여,

당과 조국과 인민이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안고 지켜보고있다.

하루빨리 경공업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을 위한 당의 정책, 사회주의시책들이 은을 내게 하자.

인민생활문제해결에서 승리의 포성이 울릴 때까지 전진 또 전진하자.

《전국가적으로 경공업을 중시하고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김 정 은

헌신적복무—이것이 인민에게 무한히 성실한 자세이다

식료일용공업부문 일군들의 사업기풍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론을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은 때로부터 한해가 되였다.

이 나날 식료일용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벌려 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하였다.

식료일용공업성적으로 매달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고 당과류, 콩우유, 애기젖가루, 화장품류 등 소비품생산계획을 현물지표별로 수행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다.

식료일용공업부문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속에는 인민의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아글타글 투쟁하여온 이 부문 일군들의 관점과 태도, 투쟁기풍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이악하고 박력있게 밀고나가면 오늘의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습니다.》

전국경공업대회의 정신을 받들고 식료일용공업부문 일군들은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질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로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각지 식료일용공업부문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인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인민의 요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해결해주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면서 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평양식료련합기업소의 한 당일군은 말하였다.

《우리 련합기업소가 거둔 성과를 분석해보면 확실히 인민을 대하는 우리 일군들의 관점과 립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전국경공업대회이후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지난 시기 사업을 심각히 분석총화하고 분발해나섰다.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군이 되자면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여야 한다. 군중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문제를 이렇게 세우고 일군들은 새로운 결심을 안고 책략적으로 일판을 벌려나갔다.

련합기업소참모부 일군들속에서부터 참신한 일본새가 발휘되였다. 많은 경우 책상머리에서 수자놀음에 매달리던 지난 시기 고리타분한 사업태도에서 대담하게 벗어났다.

하루사업이 현장에 내려가 걸린 문제를 대중속에서 풀어나가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하루사업총화도 걸린 문제를 풀어준 정형을 놓고 진행하도록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웠다. 참모장인 기사장부터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결론받을 일이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면 일군들은 의례히 생산현장에서 기사장을 찾군 했다. 생산정상화에서 어느 고리가 걸렸는가, 설비고장에 있는가, 증기보장문제가 걸렸는가, 아니면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이 낮은데 원인이 있는가를 일군의 눈으로 실지 보고 문제점을 찾아쥐였다.

이렇게 일군들이 현장에서 걸린 고리를 찾고 즉시에 현실적인 방도를 세워나가니 확실히 아래단위들에 생기가 넘쳐났고 사업성과 또한 눈에 띄게 나타났다.

오늘 련합기업소일군들의 이런 일본새와 사업기풍은 모든 공장, 기업소일군들의 모범으로 되고있으며 일군들은 언제나 생산자대중속에서 성공의 열쇠를 찾고 그들의 높은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생산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가고있다.

이곳 평양식료련합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게 되는 문제점은 인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인민의 요구를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일해나가는 기풍이다.

지난해 7월, 평양곡산공장의 당과류생산공정에 만부하를 걸어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던 어느날이였다.

련합기업소일군은 퇴근길에 궤도전차안에서 한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였다. 이야기인즉 어머니가 늘 사주는 과자가 이전보다 맛이 없다는것이였다. 눈여겨보니 평양곡산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자였다. 순간 일군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것을 느끼였다.

일군의 발걸음은 평양곡산공장으로 향하였다. 만가동의 동음이 기세좋게 울리는 당과류직장으로 곧장 찾아간 일군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실을 툭 털어놓았다. 현장의 기대공들은 자기들의 결함을 허심하게 접수하였다.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기업소일군은 아예 현장에 눌러앉았다. 과자에 들어가는 원료들의 원단위소비기준은 정확히 지켰는가, 배합비률은 어떻게 보장하였고 온도조절은 어떻게 하였는가, 이렇게 과학기술지표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과정에 어느 한 원료조건에 원인이 있다는것을 발견해냈다. 그를 퇴치하기 위한 방도도 명백히 세워주었다.

이렇게 되여 평양곡산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자의 질은 한계단 오르게 되였고 시민들속에서 반영도 좋아지게 되였다.

일용공업관리국아래 각지 화장품공장의 일군들은 최첨단돌파전의 위력으로 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화장품에 대한 질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켜나감으로써 인민의 사랑받는 공장,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장의 영예를 더 높이 떨쳐가도록 하고있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날이 갈수록 인기를 모으는 신의주화장품공장의 《봄향기》화장품이며 평양화장품공장의 《은하수》화장품들에는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피타는 탐구와 열정을 바친 이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복무정신이 비껴있다.

일군들이라면 누구나 인민의 심부름군이라는 자각을 안고 그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 뛰고 또 뛸 때 인민들에게 실지 덕을 주게 된다는것을 식료일용공업부문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잘 말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명흥숙

현대화, 과학화실현에 큰 힘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나라의 전반적경공업을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활력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기본열쇠입니다.》

지난 1년간은 경공업의 현대화실현을 위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히 벌어진 나날이였다. 이 나날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련관단위 과학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생산공정과 설비의 현대화,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함흥모방직공장에 수천t능력의 편직사생산공정이 새로 꾸려지고 함흥편직공장의 현대화공사가 훌륭히 완공되여 질좋은 편직사와 갖가지 양말, 뜨개옷을 비롯한 편직물생산이 크게 늘어나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성합성가죽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첨단수준의 습식수지도포생산공정과 현대적인 부직포생산공정을 새로 일떠세우고 본격적인 생산에 진입함으로써 각지 신발공장들의 생산활성화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평양방직기계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련관부문 과학자들은 우리 식의 현대적인 유연창대직기생산을 근기있게 내밀면서 이미 있던 수백대의 낡은 직기들을 개조하여 천생산능력을 훨씬 높이였다. 평양기료품공장에서도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방직기계부속품의 국산화실현에서 큰걸음을 내디디였다.

박천견직공장 비로도직장이 현대적으로 일떠서 질좋은 비로도생산이 늘어남으로써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녕변견직공장, 팔원견직공장, 안주견직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비단천생산공정을 꾸려 우리 인민들에게 훌륭한 비단옷을 해입히시려고 커다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해나가고있다.

여러가지 기능성어린이식료품개발을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맹렬히 벌리고있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의 투쟁성과도 자랑할만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 산악같이 일떠선 평양기초식품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과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된장, 간장생산을 위한 앞공정현대화를 근기있게 내밀고있다.

강계포도술공장개건확장공사를 훌륭히 완공하여 우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지금 이곳 공장에 나간 여러 단위의 과학자들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 무균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마감단계에서 밀고나가는 한편 주정도가 낮은 포도술개발에 온갖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화장품의 질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이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화장품공장들에서 경쟁적으로 벌어지고있다. 현장에 내려간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산자대중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인민의 사랑받는 화장품개발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겠다는 만만한 투지와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새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최첨단돌파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 1.7배 장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980년대처럼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 갖가지 질좋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론을 높이 받들고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자들이 지난해에 소비품생산을 1.7배로, 품종은 수십종이나 늘이였다.

중앙과 지방의 경공업공장들과 생산협동조합, 동가내작업반은 물론 중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 등 어디에서나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만들어내기 위한 된바람이 일어나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다시한번 과시되였다.

평양시, 남포시, 평안북도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활기를 띠고 벌어져 뚜렷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평양시의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일군들이 인민생활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소비품들을 생산하는데 중심을 두고 군중의 창발성을 발동하여 품종을 확대해나간것이다.

혁신적안목으로 소비품생산작전을 짜고들어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히 내밀고있는 일군들의 일본새에 의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단위들에서는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였으며 결과 8월3일인민소비품직매점류통액이 장성하였다.

대동강구역, 선교구역, 대성구역, 력포구역의 일군들은 지난 시기 직매점운영에서 찾은 교훈과 경험에 기초하여 생산기지를 늘일것은 늘이고 가내작업반도 더 조직하여 여러가지 소비품을 인민들에게 봉사하였다.

남포시 천리마구역, 와우도구역에서도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다양한 형태의 완구와 같은 새 품종의 소비품을 생산하였다.

평안북도 신의주시, 동림군, 곽산군에서는 이미 있던 소비품생산기지를 자기 시, 군의 특성에 맞게 보다 현대적인 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평성시가내작업반관리소 소비품생산자들이 서로의 지혜를 합쳐 만들어내고있는 여러가지 소비품들이 수요자들속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자기 단위를 상징할수 있는 소비품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지금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과정에 나오는 자투리로 쓸모있는 생활필수품을 더 다종다양하고 질좋게 만들어내여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전국경공업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전사회적, 전군중적운동으로 활발히 벌려나가기 위한 생산자들의 투쟁열의는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자체로 살림을 늘여가는 긍지

회 령 시 에 서

전국경공업대회정신을 받들고 회령시안의 모든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인민경제계획을 매달 넘쳐 수행하고있다. 자체로 살림을 늘여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긍지는 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령기초식품공장, 회령식료가공공장에서 주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기초식품과 여러가지 식료가공품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곡자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한 회령기초식품공장에서 간장, 된장의 질을 현저히 끌어올려 시안의 급양망들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회령식료가공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여러가지 식료가공품을 생산하여 시안의 급양망들에 보내주고있다. 공장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갈수록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제품의 질적발전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회령종이공장에서도 소형원통쇄목기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생산성을 1.5배로 높이고 종이의 질을 개선하였다. 매달 학습장, 수첩 등 지표별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는 공장에서 시살림살이에 이바지하는 몫은 크다.

회령화학일용품공장에서도 빨래비누를 정상생산하여 시안의 주민들에게 공급하고있다. 공장에서는 빨래비누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피마주기름변성기술을 완성하였으며 생산공정도 현대적으로 꾸려놓았다. 공장의 생산지표는 빨래비누만이 아니다. 외장재, 머리기름, 구두약, 잉크 등 그 가지수는 참으로 다종다양하다.

그중에서 외장재는 질이 좋아 수요가 대단히 높다.

회령목재가공공장, 회령시연료사업소 등에서도 주민들의 호평을 받는 소비품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회령시연료사업소에서 새 기술을 받아들여 생산하고있는 착화탄은 주민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해주고있다.

결실없는 땀으로 충정을 말하지 말자, 이것은 인민소비품생산을 책임진 시안의 지방공업공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끓고있는 불타는 맹세이다.

본사기자

맛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

라남식료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 라남식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1.4분기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공장에서는 뜻깊은 올해 생산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킬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배인 진영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년초부터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로동자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계획수행기간 과자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만부하를 걸기 위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도입하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였다. 사탕작업반과 콩우유작업반, 음료작업반의 로동자들도 제품의 질보장에 선차적힘을 넣으면서 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갔다.

공무작업반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설비와 장치들의 수리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 생산정상화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자체탄광의 로동자들은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더 많은 석탄을 공장에 보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원료기지작업반원들도 원료의 량이자 생산량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올해벽두부터 원료보장에 큰 힘을 넣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절약은 곧 생산이며 애국심의 발현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한W의 전기, 한g의 석탄과 원료도 극력 아껴쓰기 위한 사업에 모두가 자각적으로 참가하고있다. 특히 합리적인 기술혁신안, 합리화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면서도 생산량을 늘이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고있다.

지난 3월 9일까지 1.4분기생산계획을 130%로 넘쳐 수행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상반년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늘어나는 계획완수자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종업원들속에서 3월현재 수십명의 년간, 상반년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되였고 그 대렬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이미 올해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직포공 한명희, 상반년계획을 수행한 직포공 김명실, 정방공 원정화, 김금진, 연사공 우숙영, 우미영동무들을 비롯한 혁신자들의 얼굴마다에 기쁨과 긍지가 한껏 어렸다.

천리마선구자의 노래를 부르며 기적을 창조한 방직공들처럼, 위대한 장군님 따라 로동당시대를 빛내여온 그날의 방직공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창조의 구슬땀을 바쳐온 이들이다.

하기에 최근에 또다시 돌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이들만이 아닌 전체 종업원들은 당정책관철의 제일결사대가 될 충정의 맹세로 가슴 불태우고있는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종훈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 가성소다직장에서 경공업공장들에 더 많은 가성소다를 보내주기 위한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고있다.

가성소다직장의 초급일군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받아안고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포성을 힘있게 울려가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직장의 전해운전작업반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이곳 작업반원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전해조들의 가동률을 지난 시기에 비하여 훨씬 높이고있다.

모든 작업반원들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전해조관리를 알심있게 해나가는것과 함께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설비마다 만부하를 걸고있다. 그리하여 작업반앞에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이들은 전해조들의 불비한 부분들을 빠짐없이 장악한데 기초하여 가스류실개소들이 있을세라 미리미리 빈틈없는 대책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이곳 작업반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이고있다. 종전에는 쓸모없이 버리던 세척수를 생산공정에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나라에 커다란 보탬을 주었다.

직장에서는 또한 배풍계통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기초화학제품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타올공장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 일념으로 생산에서 —사리원대성

새 제품개발을 통해 본 일군의 역할

봉화비누공장 지배인 신춘애동무의 사업을 놓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남의것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봉화비누공장에서 여러가지 기능성비누제품을 개발하여 내놓았다.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아주 좋은 금강약돌세수비누를 비롯하여 여러 기능성세수비누와 다기능성표백비누 등은 개발되여 나오자마자 리용자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수요자들로부터 우리 나라의 천연물질을 리용하여 만든 제품이 남의것보다 더 훌륭하다는 평가와 함께 이런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있다.

지금 인기를 끌고있는 《봉화》상표를 단 여러종의 비누들이 지난해 3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전국경공업대회이후에 개발되였다는 사실은 시사해주는 점이 있다.

현재 공장에서는 고체비누에 대한 품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액체비누생산을 위한 새로운 공정건설준비가 한창이다. 더 좋은 새 제품개발전망이 보인다.

기세도 좋고 발전속도 또한 주목된다. 우연히 생겨난 변화가 아니다.

지난해 3월 전국경공업대회에 참가하고 공장으로 돌아오는 지배인은 자책감에 잠기였다.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빨래비누가 인민들에게 정상공급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하면서 새 제품개발에 낯을 덜 돌리였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몇년전부터 시도하는 금강약돌세수비누만 보아도 이런저런 조건으로 완성하지 못하고있었다.

국내의 천연물질로 우리 나라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보자는 시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며칠후 지배인은 새로 작성한 공장의 새 제품개발목표를 발표하였다.

새로운 세수비누들이 모두 기능성제품들이였다. 여기서 핵은 모든 제품의 기본물질을 국내산 천연물질에서 찾은것이였다.

지배인의 혁신적인 발기앞에서 종업원들은 자기것을 귀중히 여긴다는것이 바로 이런것이구나 하는 자각으로 가슴들이 뿌듯해져 앞을 다투어 그에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가고 물었다.

어느날 과학기술서적을 연구하던 지배인은 벌풀을 대신할 성분을 얻어낼수 없겠는가에 생각이 가닿게 되였다. 벌풀속에는 사람의 피부에 영양학적으로나 약리학적으로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벌풀을 대량적으로 수집할수 없는 조건에서 기능성세수비누를 대량생산하자면 이것과 같은 성분을 얻어내는 길밖에 없었다. 당시로서는 막연한 시도였지만 지배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 인민대학습당,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등 그의 발길은 여러 단위에로 줄기차게 이어져 끝내 벌풀을 대신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쥐게 되였다. 그것을 연구한 과학자가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림성화동무라는것도 알아내였다.

그런데 기능성제품개발에서 제일 난문제의 하나는 천연물질을 미분하고 분사하는것이였다.

실패가 거듭되였다. 하지만 지배인은 물러앉지 않고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부, 생명과학부 연구사들과 협동하여 기어이 금강약돌미분도를 5㎛까지 낮추고 천연재료의 리상적인 분사조건을 끝끝내 해결하였다.

새 제품개발에서 일군의 역할은 종업원모두를 새 제품개발에 뛰여들도록 이끌어주는데 있다.

누구나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그 어떤 첨단기술도 발명하고 창안할수 있다는 신심을 주고 두뇌전, 기술전에 대담하게 뛰여들도록 이끌어주는 지배인의 능동적인 활동은 공장의 새 제품개발속도에 박차를 가하였다.

금강약돌세수비누개발에서 좋은 실험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기사는 제품의 형타를 새롭게 개조할것을 제기하였다. 형타개조에 얼마나 많은 품이 드는가를 잘 아는 지배인이였지만 그는 공장제품을 형태와 색갈 등 모든 면에서 새롭고 특색있게 만들려는 지향을 평가하고 적극 지지해주었다.

그리하여 책임기사와 설비부원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최동주동무와 힘을 합쳐 훌륭하게 형타를 개조하였다.

종업원들속에서 다기능성표백비누와 1회용비누를 개발하자는 안이 제기되였을 때에도 지배인은 기술준비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깐깐히 따져보고 대책해주었으며 완성되도록 이끌어주었다.

새로 개발된 제품의 향문제로부터 포장재, 상표도안창안에 공장종업원들은 너도나도 팔걷고나서서 한가지이상의 새로운 발기를 하였고 이 과정에 비누제품에서 하루빨리 패권을 쥘수 있다는 확신도 가지게 되였다.

자기 공장의 얼굴이 뚜렷한 제품,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개발을 위해 바친 이들의 피타는 노력은 좋은 결과를 낳았다.

얼마전에 《봉화》상표를 단 금강약돌세수비누는 특허를 받았다. 또 다른 기능성세수비누는 지금 사용자들속에서 날이 갈수록 인기를 끌고있다. 이 비누를 쓰면 무좀, 여드름을 비롯한 피부병이 없어지고 청결한감을 느낀다는것이 수요자들의 평가이다. 세탁물을 표백시킬뿐만 아니라 세수비누로도 사용할수 있는 다기능성표백비누와 1회용비누, 가루비누 등도 역시 그 호평이 대단하다.

《봉화》상표를 단 새 제품들의 본격적인 출현, 이것은 어느 단위에서나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결코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학교지원사업에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자

후대들을 위한 일에는 후원단체가 따로 없다

만수대창작사 일군들과 종업원들

만수대창작사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평천구역 성안초급중학교를 성심성의껏 도와주어 학교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켜주었다.

우리는 취재과정에 그 나날들과 더불어 꽃펴난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나라의 튼튼한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후대들에게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평천구역 성안초급중학교 교장 지복순동무는 학교가까이에 위치한 만수대창작사의 책임일군들을 찾아갔다.

지척이였지만 미안한 생각이 앞서 몇번이나 바재이다가 뗀 걸음이였다.

후원단체는 아니였지만 10여년동안 학교를 위해 많은 콤퓨터들과 함께 교편물제작과 건설보수에 필요한 각종 자재들을 성의껏 마련해준 만수대창작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였다. 그런데 이제 또 어려운 부탁을 한다는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이제 장마철이 오면 오래전에 씌운 지붕으로 비가 샐 걱정과 함께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며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군 하던 이곳 책임일군들의 미더운 모습이 떠올라 떠났던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은 만수대창작사의 책임일군들은 조금 기다려달라는 약속을 하였다.

지복순동무는 당에서 맡겨준 중요한 과제들을 받아안고 긴장한 전투를 벌리느라 눈에 피발이 선 책임일군들에게 지나친 부탁을 한것은 아닐가 하는 생각을 하며 학교로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후 만수대창작사의 일군인 전남철동무가 학교를 찾아왔다. 그는 학교의 지붕씌우기공사량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나서 교장에게 인차 공사를 시작하자고 하는것이였다.

(그렇게 빨리?…)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지복순동무는 속으로 이렇게 외웠다.

사연이 있었다. 교장을 돌려보내고 마주앉은 책임일군들인 주수용, 홍창의동무들은 오랜 토의끝에 아무리 힘들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뜻을 받들어 학교를 도와주기로 결심하였다.

쉽지 않은 결심이였다. 건설분야에 대하여 손금보듯 잘 알고있는 그들이였기에 창문에서 한눈에 내다보이는 학교의 지붕씌우기공사에 얼마나 많은 품이 드는가를 쉽게 짐작할수 있었던것이다.

주수용동무는 일군협의회를 소집하였다.

《…자, 이젠 다 알겠습니까?비가 새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자식들을 보며 팔짱끼고 있을 부모들은 없습니다. 더우기 후대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데 여기에 무슨 후원단체가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학부형이 된 심정으로 학생들이 마음편히 공부할수 있게 하루빨리 새 지붕을 씌워줍시다.》

절절하게 하는 그의 말은 일군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일군들은 이왕 도와줄바치고는 만수대창작사의 특색을 살려 전국의 학교들의 본보기가 되게 꾸려주자고 하며 저마다 호응해나섰다.

이날 공사를 립체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 자재보장과 로력조직, 운수기재동원 등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

얼마후 학교마당으로는 기중기차와 대형화물자동차 등 기계화수단들과 운수수단들이 미여지게 들어섰다. 모래, 세멘트, 지붕철판 등 수많은 각종 자재들을 실은 화물자동차들도 꼬리를 물고 들어섰다.

이렇게 되여 이미 있던 낡은 지붕을 통채로 들어내고 두채의 학교건물에 1천여㎡의 철판지붕을 새로 씌우는 방대한 공사가 시작되였다.

온 학교가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직원모두가 떨쳐나 건설자들을 도우며 밤낮없이 공사를 밀고나갔다. 학부형들도 자식들을 위한 일인데 가만있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스스로 일을 찾아하였다.

이 나날에 만수대창작사의 책임일군들은 학교일군들과 여러차례 협의회도 진행하고 자주 작업현장에 나와 걸린 문제들도 제때에 풀어주며 뜨거운 정과 사랑을 쏟아부었다.

모두가 지붕씌우기에만 신경쓰고있을 때 만수대창작사의 책임일군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를 더 잘 꾸려줄수 있겠는가 하는 사색을 끊임없이 계속하였다.

지붕씌우기공사가 끝나자 비단우에 꽃을 수놓는 심정으로 만수대창작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정성껏 만든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무게있게 학교정면에 설치해주었다. 우리 후대들이 조선을 위해 더 많이 배워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직하게 받드는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둥감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은 또한 마지막까지 운수기재들을 총동원하여 공사과정에 나온 200여t의 버럭을 말끔히 처리해주었다.

20일 남짓한 기간에 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을 때 너무도 몰라보게 변모된 학교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교직원모두가 너무 좋아 눈물을 흘렸다. …

이뿐이 아니였다.

학교의 복도들에 걸려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 교양판들과 함께 유화작품들, 각종 액틀과 걸그림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구석구석에 만수대창작사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세심한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었다.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자기 일이 바쁘다고 스쳐보내고 후원단체를 따지면서 외면하거나 타산을 앞세웠더라면 어떻게 이 학교가 오늘과 같이 훌륭하게 변모될수 있었겠는가.

올해에도 만수대창작사의 일군들은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있다.

모든 단위들에서 이들처럼 진심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후대들을 위해 심장을 불태워나갈 때 우리의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더한층 강화될것이며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는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길주군의 일군들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빛내인 긍지드높이 길주군에서 올해농사차비전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있다. 그 앞장에는 군안의 일군들이 서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군의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이라는 자각을 안고 올해 군이 맡고있는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결심밑에 년초부터 협동벌에 달려나가 이신작칙으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군당책임일군은 어느 한 농장을 맡고내려가 일군들과 농장원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심어주는 한편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지력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그리고 농장원들과 함께 질통을 지고 거름을 나르면서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군인민위원회책임일군을 비롯한 군의 일군들도 농장원들과 나라의 쌀독을 함께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거름실어내기에 적극 참가하여 농사차비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을 고무추동하였다.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군안의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녀맹원들도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협동벌에 달려가 성실한 구슬땀을 바치였다. 그리하여 올해 첫달 20일동안에만도 500여t의 도시거름을 협동벌들에 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일군들은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지금까지 군적으로 많은 량의 자급비료와 흙보산비료, 구운흙을 포전에 냈으며 소농기구전시회를 의의있게 진행한 후 1만여점에 달하는 중소농기구들을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협동농장의 일군들도 혁명의 지휘성원이라는 자각을 안고 올해 농사의 앞장에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있다.

봉암, 주남, 홍수, 백원협동농장의 일군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농장원들의 앞장에서 많은 거름을 포전에 냈다.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군급기관의 일군들이 앞장서고있다.

군농기계작업소, 군편의봉사관리소의 일군들은 농기계부속품생산과 수리정비,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생산에 필요한 많은 량의 원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대중을 불러일으켜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위하여

평성시의 일군들

평성시 평성유치원에 가본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한다.

하얀 벽체들과 새로 정성껏 깔아놓은 문양고운 레자, 복도를 따라가며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붙여놓은 여러가지 장식들, 매 방마다에 갖추어진 책상, 의자, 옷장, 장난감장, 침대들, 깨끗하게 꾸려진 주방칸, 식사칸들과 유희실, 실내운동실,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수영장…

이 모든것을 도당위원회와 시당위원회의 지도와 방조속에 평성시인민위원회가 책임지고 단 몇달동안에 꾸려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구호에 우리 장군님의 후대관이 집약되여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을 심장에 새겨안은 시의 일군들은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이곳 유치원을 본보기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은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 새로 건설하는 건물들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서로 경쟁을 벌렸다. 경쟁열풍속에 일정별계획에 따라 건물이 빠른 속도로 한층한층 올라갔다.

시인민위원회의 일군인 윤명일동무는 현장에서 침식하며 건설에서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시인민위원회위원장 안명옥동무는 매일과 같이 현장을 돌아보며 모래, 세멘트를 비롯한 필요한 자재들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였다.

어느날 저녁늦게까지 작업을 하고있던 유치원원장인 리양순동무는 지방에 출장간 시인민위원회위원장의 전화를 받게 되였다.

건설은 어느 정도 추진되였는가, 자재는 아직 넉넉한가, 로력이 긴장하지 않은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묻는것이였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리양순동무는 멀리에서도 유치원건설을 두고 그리도 마음쓰는 위원장의 그 진정에 가슴이 젖어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

풋잠에 들었던 원장은 이른새벽 건설장에서 들려오는 발자국소리에 깨여났다.

의아한 심정을 안고 그곳으로 가본 원장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밤새 출장지에서 돌아온 안명옥동무가 전지불을 켜들고 현장을 돌아보고있었던것이다.

시당의 책임일군들은 시안의 인민생활을 맡아안고 바삐 뛰는 시인민위원회위원장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유치원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스스로 맡아가지고 해결해주었으며 자기들이 솔선 앞채를 메고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분발시켰다.

이렇듯 시안의 일군들이 마음을 합쳐 노력한 결과 이곳 유치원은 오늘과 같이 사람들의 호평을 받는 아이들의 훌륭한 보금자리로 변모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

남포시 항구구역에서

얼마전 남포시 항구구역에서는 3월학교지원월간을 맞으며 교육지원전시회가 열리였다.

구역의 책임일군들과 여러 단위 일군들, 교육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교육지원전시회에는 기관, 기업소들에서 성의있게 마련한 책상, 의자들과 콤퓨터, 록화기, 체육기자재 등 근 40종에 6 000여점이 전시되였다.

교육자들모두가 뜨거움을 금치 못하였다.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구역일군들의 진정은 비단 그날의 전시품들에만 비껴있는것이 아니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교육사업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교육부문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는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고있으며 교육조건에 대한 요구수준도 더욱 높아지고있습니다.》

올해초부터 구역인민위원회에서는 새 학년도 학용품생산과 관련한 협의회들이 자주 열리군 하였다.

미리부터 잡도리를 잘하고있다가 짧은 기간에 학용품생산을 다그쳐 끝내자는것이 일군들의 하나와 같은 생각이였다.

자재확보와 생산조직 등 학용품생산과 관련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가는 구역인민위원회일군들의 열의는 뜨거웠다.

어느날 협의회에서 한 책임일군의 호소는 모두의 심장을 울리였다.

《여기에 앉아있는 동무들모두가 인민의 심부름군들입니다.

학용품생산을 위한 포치나 총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장에서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구역안의 교육자들과 학생들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는것을 명심합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구체적인 분담이 진행되였다.

그때부터 학용품생산을 위한 전투가 벌어지고 구역인민위원회일군들은 늘 긴장한 나날을 보내였다.

구역당위원회에서도 학용품생산을 적극 뒤받침해주었다.

구역인민위원회위원장 송승철동무는 자재보장을 솔선 맡아가지고 앞장에서 달리면서 위원회안의 일군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자재가 넉넉히 마련되였다. 부장 박봉섭동무를 비롯한 구역인민위원회일군들은 항구식료일용가내생산협동조합과 항구종이공장 등에 달려나가 생산자들을 고무추동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학용품생산을 적극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책가방, 연필, 필갑, 학습장 등 학용품생산을 지표별로 모두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교육사업에 대하여 늘 관심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애쓰는 일군들의 수고를 두고 교육자들이 고마움을 표시할 때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군 한다.

《우리가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뿐입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자신들의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는 이런 일군들이 있어 구역의 교육사업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공로혁

기초식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혜산기초식품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크나큰 행복속에 생일상을 받아안은 통일애국투사

위대한 당,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김영달동지가 여든번째의 생일을 맞이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18일 그에게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생일상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한몸바쳐 싸운 김영달동지에 대한 크나큰 은정이 어려있다.

해방전 빈농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웠다. 전후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나서서 투쟁하던 그는 적들에게 체포되여 수십년간이나 옥중고초를 겪으면서도 혁명적신념과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를 공화국의 품으로 데려오도록 하시고 공화국영웅으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넘친 생일상을 받아안은 김영달동지와 가족들은 한없는 고마움과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와 가족들, 비전향장기수들은 오늘의 영광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국통일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한몸 다 바쳐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1차련맹전소식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1차련맹전이 체육인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속에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련맹전에 참가한 모든 팀들은 훈련을 통하여 련마한 완강한 투지와 인내력,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경기를 높은 수준에서 운영해나가고있다.

현재 남자경기에서는 4.25팀, 리명수팀, 만경봉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있다. 선수들의 순간속도가 빠른 4.25팀과 기술적으로 잘 준비된 리명수팀이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경기시작부터 마감까지 속도와 인내력을 늦추지 않는 만경봉팀 선수들의 활약도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18일에 있은 남자경기에서는 룡악산팀이 관모봉팀을 3:0으로, 압록강팀이 묘향산팀을 1:0으로 이기고 기관차팀과 경공업성팀은 2:2로 비겼다.

녀자경기에서는 룡악산팀이 신흥산팀을 3:0으로, 만경봉팀이 묘향산팀을 1:0으로, 리명수팀이 갈매기팀을 1:0으로 이겼다.

경기는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버섯기르기를 적극 내밀어 덕을 본다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온 나라가 버섯기르기로 들끓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지의 당조직들에서 버섯기르기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성과를 거두고있다.

연탄군당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한 당, 행정, 근로단체책임일군협의회에서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할데 대한 당의 방침 집행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고 분공조직사업을 짜고들었으며 그 정형을 매월 집행위원회확대회의에서 총화하고 대책을 세웠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버섯공장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설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주었다. 뿐만아니라 버섯재배에서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공장에 배치하고 그가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해당 연구기관들과의 련계밑에 주머니에 의한 참나무버섯속성재배방법을 받아들여 수확률을 훨씬 높이도록 이끌어줌으로써 전국과학기술발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하였다. 그리고 버섯공장에서 해마다 많은 종균과 1만여개의 버섯재배블로크를 생산하여 군안의 130여개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읍지구 가정세대들에까지 공급해주는 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주었다.

지난해에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책임일군들과 버섯재배공 수백명을 버섯공장에 모여놓고 보여주기사업을 두차례나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그리고 모든 단위들이 버섯재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정확히 알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에 반영하여 철저히 집행하게 하였다. 결과 군에서는 지난 7년간 해마다 평균 30여t의 버섯을 생산하여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 탁아소, 유치원원아들을 비롯한 군내 주민들에게 공급하여줌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다.

은파광산에서는 두해전 광산의 특성에 맞게 갱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버섯을 많이 생산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 후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광산초급당위원회에서는 버섯재배에 리용할수 있는 갱들을 료해한 다음 갱도확장공사를 위한 돌격대를 조직하였다. 일군들은 앞장에서 착암기를 잡고 굴진도 하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짧은 기간에 사철버섯을 생산할수 있는 380㎡의 갱도식버섯재배장을 번듯하게 꾸려놓게 하였다. 초급당비서 차봉길동무는 후방일군들과 버섯재배공들과 함께 여러차례 해당 연구기관과 안변군에 찾아가 앞선 재배기술을 배우면서 종균과 원료, 자재들을 충분히 갖추어놓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결과 광산에서는 해마다 수십t의 버섯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닦아놓았다. 그리고 생산한 버섯을 영양제식당들에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주어 광부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고 생산열의를 북돋아주었다. 그리하여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여러 갱들이 2중3대혁명붉은기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은률광산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수십년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광산을 찾아오시여 광부들의 후방공급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주신 유훈 관철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결부하여 근기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광산에서는 최근년간 버섯생산과 관련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지난 시기 리용하던 300여㎡의 태양열에 의한 남새온실을 개건확장하고 종균배양장과 멸균실, 분쇄실을 갖추어놓았으며 지하버섯재배기지도 꾸려놓았다. 그리고 광산안의 모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궐기단위들에서도 자체실정에 맞게 버섯재배기지를 꾸려놓고 그 관리운영을 실속있게 하도록 장악지도를 강화하였다.

현재 광산에서는 연 1 800여㎡의 버섯과 온실남새생산기지를 갖추어놓고 관리운영을 짜고들면서 생산물들을 광부원과 정양소, 영양제식당들에 공급하여주고있다. 그리하여 광부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그들을 증산투쟁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으며 최근 3년간 광산적인 철광석생산계획을 해마다 평균 105%로 넘쳐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평안북도 운산군 좌리협동농장에서 버섯분조를 조직하고 500㎡의 버섯재배장을 자체로 꾸려 최근년간 많은 버섯을 생산하여 농장안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 농장원세대들에 공급하고있다.

이밖에도 보건성 중앙의약품관리소, 모란봉구역 채과도매소, 덕성군 인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버섯기르기를 힘있게 내밀어 그 덕을 보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충정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가며

강동군편의봉사사업소 박영애동무

언제나 보답의 마음을 안고 충정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가는 사람들속에는 강동군편의봉사사업소 박영애동무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12월 어느날이였다.

그날밤 강동읍 42인민반의 어느 한 가정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질줄 몰랐다.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어버이장군님을 뜻밖에 잃은 상실의 아픔이 박영애동무의 가슴에서도 좀처럼 가셔질줄 몰랐던것이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박영애동무에게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누려온 행복의 나날들이 다시금 돌이켜졌다.

조국통일의 길에 한몸바친 할아버지를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내세워주시고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한길에서 영예롭게 전사한 아버지를 영광의 단상에 높이 올려세워주신분은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펴고 대학까지 졸업한 자신의 지나온 나날이 되새겨질수록 박영애동무에게는 받아안은 사랑과 행복에 조금이나마 보답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더욱 굳어졌다.

(내 언제나 보답의 한길을 걷고 걸으리라.)

지난 기간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스스로 진행해온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지혜와 정열을 더더욱 쏟아부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짬짬이 관리도구들을 마련해나갔으며 귀한 꽃씨와 꽃나무를 구하기 위하여 먼길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박영애동무는 이렇게 품들여 마련한 물자들이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보내여질 때면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더더욱 가슴을 불태웠으며 이 사업에 자신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나갔다.

강동읍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모시는 사업과 영생탑을 건립할 때에도 박영애동무는 남먼저 건설현장으로 달려가 땀을 흘리고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도 건설자들에게 안겨주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이렇게 박영애동무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전해갈 한마음을 안고 자신의 깨끗한 충정을 바쳐온것으로 하여 당의 높은 정치적평가를 받아안게 되였다.

그럴수록 박영애동무는 받아안은 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의 마음이 미처 따라서지 못한것 같아 죄스러움을 금할수 없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할것을 다짐하군 하였다.

박영애동무는 숭고한 도덕의리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자욱을 가슴에 새기면서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였다.

그가 계영철동무를 비롯한 여러명의 영예군인들을 위해 걸은 길은 또 얼마였던가.

성의껏 마련한 보약과 식료품, 약재를 안고 영예군인들의 집을 때없이 찾아와 생활의 구석구석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줄 때면 그들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이군 하였다.

지난해에도 그는 전승 60돐을 맞으면서 군안의 10여명의 전쟁로병들에게 성의를 다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어느날 박영애동무와 그의 남편은 대학추천을 받고 기뻐하는 맏아들을 다정히 불러앉히였다.

《물론 대학공부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조국이 없다면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어떻게 생각할수 있겠니?》

《우린 네가 귀중한 청춘시절을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길에 바쳤으면 한다.》

부모의 뜨거운 속마음을 알게 된 맏아들은 결심을 바꾸어 조국보위초소로 용약 탄원하였다.

그후에도 박영애동무는 맏아들이 군사복무의 나날을 위훈으로 수놓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군 하였다.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았을 때에도 박영애동무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성의껏 진행하였다.

언제나 보답의 마음을 안고 생의 자욱을 아름답게 수놓아가는 박영애동무,

그는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 길에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독자의 편지

모두가 한가정, 한식솔입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것은 영예군인인 저를 수십년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고있는 고마운 사람들을 소개하고싶어서입니다.

여러차례의 대수술을 받은 저는 지난해부터 병이 도져 자리에 눕게 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상업성 중앙도매소 박건국과장을 비롯한 김영란, 김경덕동무들이 여러가지 보약재들을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맛이 떨어질세라 구미에 맞는 음식들을 가져다주고 운동기구도 안겨주면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돐을 맞으며 상업성 일군인 안재용, 중앙도매소 일군들인 김필원, 오경은동무들과 종업원들이 또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병상태는 어떤지, 애로되는것은 무엇인지 다정히 물어보며 빨리 병을 털고 혁명초소에 다시 서자고 고무해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진정에 눈물로 옷깃을 적시고말았습니다.

쓰러질세라, 나약해질세라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이런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 저는 활력에 넘쳐 생활하고있는것입니다.

정말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는 모두가 한가정, 한식솔입니다.

평천구역 안산2동 95인민반 김영배

《마식령속도》 창조자들처럼 조선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것을 증명하자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1000리 수송길에 새겨진 결사관철의 투쟁위훈

통나무생산에 떨쳐나선 현장지휘부일군들과 각 려단 돌격대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 접하여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의 모든 단위들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던 지난 3월초의 어느날이였다.

날이 밝을무렵, 전투적인 글발과 표어들을 써붙이고 적재함우에는 붉은기들을 꽂은 10여대의 대형화물자동차들이 현장지휘부앞마당에 정렬하였다.

《동무들! 당앞에 다진 신념의 맹세안고 공사에 필요한 목재보장이 한시라도 지체될세라 자체로 통나무를 생산할것을 결심한 우리 희천용사들이 아닙니까. 눈덮인 험한 령길들을 넘으며 왕복 1 000리길을 달려야 하는 오늘의 수송길에서 우리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자들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나갑시다. …》

새벽하늘가에 울려퍼지는 현장지휘부 정치일군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이어 자동차행렬은 일제히 발동소리 드높이 지휘부앞마당을 출발하였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올해콩크리트치기를 위해 자체로 생산한 통나무를 수송하기 위한 길에 오른 이 집중수송대오에는 남다른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올해초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접하여 각 단위들에서 콩크리트치기공사를 위한 굴착과 성토, 타입준비작업이 힘있게 벌어지던 어느날이였다.

걸린 통나무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기 위해 각 단위들에서 필요한 력량이 전개되여 생산전투는 벌리고있었지만 역시 작업조건이 어렵고 수송공정이 복잡한 림산작업을 건설을 내밀면서 돌격대자체로 원만히 해제끼기는 조련치 않은 일이였다.

현장지휘부의 책임일군은 다시한번 통나무생산의 된바람을 일으킬 결심밑에 즉시 왕복 1 000리나 되는 어느 한 림산사업소의 산판에 올랐다.

그는 허리치는 눈길을 헤치며 밀림속의 채벌장과 토장들을 빠짐없이 찾아가 통나무생산자들에게 항일선렬들의 투쟁정신을 심어주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일하도록 심장의 불을 달아주었다.

함경남도, 평안남도려단을 비롯하여 각 단위에서 달려나온 전투원들이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대로 살며 일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나날에 그들의 정신력이 최대로 분출되고 통나무생산에서는 일대 앙양이 일어났다.

자강도려단에서 달려나온 전투원들은 기계톱은 물론 손톱과 도끼로 나무베기와 가지자르기를 앞세우면서 산지토장까지 통나무끌어내리기를 줄기차게 벌려나갔으며 철도성려단에서 달려나온 전투원들은 숙소에서부터 수천m나 떨어진 산판에 올라 눈부신 전투를 벌려 2월 한달동안에만도 460여㎥의 통나무를 산지토장까지 운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앞을 가로막았다. 콩크리트치기전으로 한대의 통나무라도 더 빨리 발전소건설장들에 가닿아야 휘틀제작이 일정계획대로 다그쳐질수 있었던것이다.

즉시 현장지휘부적인 긴급수송전투를 조직해야 하였다. 그러나 운행구간이 왕복 1 000리나 되고 도로상태가 험한것으로 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책임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대로 사상의 위력으로 난관을 맞받아 불고나갈 결심밑에 자동차에 의한 집중수송전투를 대담하게 작전하고 자신들이 직접 수송길의 앞장에 섰다.

각 단위들에서 기능높은 운전사들이 선발되고 통나무생산자들을 위한 후방물자들이 마련되였다. 각 단위 정치일군들이 운전칸에 올라 운반전투를 이끌어가도록 적극적인 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현지에 도착한 일군들은 뭇별들이 반짝이고 칼바람이 기승을 부리는 수십리 산판길을 왕성한 투지로 오르내리며 여러 단위 돌격대원들의 숙소를 찾았다. 련이어 채벌장과 상차장마다에서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또다시 격식없이 벌린 화선식정치사업의 일대 진공전은 모든 전투원들로 하여금 통나무생산과 당면한 집중수송전투에서 전례없는 위훈을 창조하도록 고무추동하였다.

항일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살며 일해갈 돌격대원들의 열정과 투지는 다음날에 벌어진 통나무집중수송전투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차바퀴에 쇠사슬을 차고도 위험을 동반하는 얼음진 외통길을 10여대의 자동차가 단번에 많은 량의 통나무를 싣고 무사히 통과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수송대원들의 의지를 시험하듯 갑자기 산골길에 눈바람까지 몰아쳤다. 하지만 이들은 공사장들에 한시라도 빨리 통나무가 가닿게 하는것이 높은 공사성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자각하고 전조등을 비쳐가며 가파로운 령길마다에서 결사전을 벌리였다. 자동차가 지칠세라 선두에서 방송선전차의 마이크를 쥔채 수송지휘에 나선 현장지휘부 책임일군과 운전칸에 올라 운전사들과 함께 힘겨운 구간들을 견인불발의 의지로 돌파해나간 각 단위 지휘관들, 눈속에서 흙과 모래를 채취하여 뿌리며 위기일발의 순간마다 서슴없이 고임목을 들고 나선 수송대원들의 모습은 말그대로 항일의 그날 사령부의 안녕을 지켜싸운 오중흡7련대원들을 방불케 하였으며 포화속을 뚫고 전시수송을 다그치던 영웅전사들의 군상을 련상시켰다.

이런 불굴의 투쟁속에서 수송대오는 긴 구간의 험한 령길들을 성과적으로 강행돌파하였으며 나머지구간의 운행길도 승리의 개가높이 그 밤으로 힘차게 이어갈수 있었던것이다.

1 000리길에 수놓아진 영웅적위훈,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결사관철하려는 희천용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 안아온 귀중한 열매로서 정신력이 총폭발될 때 불가능이란 없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새겨주며 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전체 돌격대원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창조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방문기 기계화의 동음 드높은 건설장

철도성려단을 찾아서

소문없이 큰일을 해제끼고있는 철도성려단에 새로운 창조와 비약의 기상이 세차게 약동하고있다. 희천10호발전소건설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언제길이가 특별히 길고 그에 따르는 작업량이 방대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건설의 기계화비중을 부단히 높이면서 진격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제끼고있는 이곳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실속있는 일본새를 새삼스레 느낄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앞장에서 더욱 용기백배하여 투쟁해나감으로써 오늘의 승리가 래일의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우리의 눈에 대뜸 띄운것은 힘차게 용을 쓰는 굴착기들과 대형화물자동차들의 작업모습이였다. 강철팔을 기세좋게 뻗치며 굴착기들이 흙과 자갈모래를 련속 퍼올리는데 이에 뒤질세라 꼬리를 물고 늘어선 대형화물자동차들이 경적소리 드높이 분주히 오가며 운반전투를 벌리고있었다. 이곳에서 작업지휘에 여념이 없는 려단장 김금정동무를 만날수 있었다.

《지난해 공사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찾은 교훈은 건설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다는것이였습니다. 하여 려단에서는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굴착기와 대형화물자동차의 가동대수를 더욱 늘이고 설비들의 만부하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종전보다 공사실적을 대폭 끌어올리고있습니다.》

심중한 어조로 말머리를 뗀 그는 공사추진정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주었다.

려단에서는 현장지휘부와 철도성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능률높은 굴착기와 대형화물자동차들을 새로 마련하고 예비부속품들을 원만히 갖추며 자체의 수리기지들도 튼튼히 꾸리였다. 이와 함께 많은 량의 물이 솟구치는 조건에 맞게 10여대의 양수기들을 공사장에 집중배치하고 압축기와 권양기관리를 짜고들면서 굴착 및 버럭처리속도를 부쩍 높이였다.

청진철도국대대와 려단설비소대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은 기초닦기와 성토, 옹벽쌓기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 끝내고 짧은 시일안에 선별기를 성과적으로 운반설치하였다고 한다. 정치부장 리성경동무와 시공과장 홍대성동무들이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면서 광차운반계통을 합리적으로 형성하고 혼합기와 착암 및 수직운반설비들의 리용률을 보다 높일수 있는 방안들을 지체없이 받아들이도록 힘껏 떠밀어주었다. 뿐만아니라 려단에서는 설비리용과 로력조직을 기동성있게 하면서 육중한 언제기중기를 성과적으로 운반설치함으로써 콩크리트치기에 드센 박차를 가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게 되였다.

비약의 돌파구를 마련한 자랑을 들으며 우리는 말은 과제를 매일 계획보다 1.2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고있는 개천철도국대대와 공사의 질보장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는 평양철도국대대의 공사장도 차례로 돌아보았다.

전투장마다에서 각종 건설설비들을 더욱 보강하고 만가동시켜 올해안으로 방대한 량에 달하는 수력구조물건설공사를 기본적으로 해제끼고 앞선 단위들을 반드시 따라앞서겠다는 모두의 야심만만한 각오와 배짱, 충천한 기세를 확연히 느낄수 있었다.

건설의 기계화비중을 부단히 높이며 건설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는 철도성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희천10호발전소건설에서 결정적인 비약을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는 공사장을 떠났다.

현지보도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앞으로!

황해남도려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여기는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희천5호발전소건설장이다.

강철팔을 련속 들어올리며 골재를 채취하는 굴착기들과 적재함마다 자갈모래를 가득 싣고 기운차게 내달리는 대형화물자동차들, 만부하의 동음 높이 울리는 선별 및 혼합설비들, 구보로 내달리는 돌격대원들로 하여 온 건설장이 말그대로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10여대의 혼합기가 만가동하는 속에 콩크리트치기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진다.

장연군, 송화군, 연안군, 은률군, 벽성군, 배천군대대의 전투원들이 혼합물보장과 콩크리트치기에 드센 박차를 가한다.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세멘트와 모래, 자갈을 혼합기에 비례맞게 투입한 돌격대원들이 물량을 알맞춤히 조절한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혼합기에서 어느새 잘 이겨진 혼합물들이 줄줄이 쏟아져내린다. 길게 뻗어내린 철판의 량옆에서는 팔소매를 걷어붙인 대원들이 삽을 잽싸게 놀리며 콩크리트혼합물을 다룬다.

김성철동무를 비롯한 다짐공들이 숙련된 솜씨로 진동다짐기를 혼합물속에 푹푹 박으며 일손을 다그친다. 진동다짐기를 틀어쥔 그들의 구리빛팔뚝에 불끈불끈 힘줄이 튀여나올 때마다 혼합물속에서 풀럭풀럭 거품이 솟고 물기가 내뱉다.

《더 많이, 더 빨리!》

《오늘 콩크리트치기에서 최고기록을 돌파하자!》

돌격대원들이 열띤 목소리로 웨치며 작업속도를 더욱 높인다.

쉼없이 물이 차오르고 모래와 자갈층이 계속 나지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굴착과제를 기어이 완수해낸 봉천군대대와 강령, 태탄, 삼천군대대, 해주시대대의 돌격대원들도 련이어 콩크리트치기에 진입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맞은켠에서는 발전기실굴착전투가 한창이다. 능률높은 착암설비들이 용을 쓰는 속에 신창범, 김진영동무를 비롯한 옹진군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총공격전의 앞장에 섰다. 신천군대대와 재령군대대, 신원군대대와 도탐사관리국대대의 전투원들도 맡은 구간의 굴착과 버럭처리를 와닥닥 다그친다.

앞서거니뒤서거니 승벽을 부리여도 모두의 지향은 하나이다. 자나깨나 경애하는 원수님을 완공된 발전소에 높이 모시고 기쁨과 만족을 드릴 영광의 그날을 그리며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돌격대원들의 열굴마다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워간다는 크나큰 긍지와 영예가 한껏 어려있다.

미래를 당겨오는 선구자, 개척자들답게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황해남도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공사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미래를 당겨오는 선구자, 개척자답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조선의 강성부흥과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영예로운 임무를 맡고있는 척후대, 개척자들입니다.》

황해남도려단 려단장 로력영웅 김석철동무는 혁신적인 안목과 창조적인 일본새를 지닌 일군이다.

그는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자기 단위에 맡겨진 건설과제를 대상별, 단계별로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있다.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함께 하고 그들의 창발적의견을 귀담아들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건설현장에서 진지하게 협의하여 제때에 옳바른 대책을 세워나가는 사업기풍이 몸에 푹 배인 일군이다.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천백마디의 웨침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돌격구령을 대신하며 진격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힘있게 열어제끼는 려단장의 뒤를 따라 모든 돌격대원들이 희천5호발전소건설에서 날에날마다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철도성려단 함흥철도국대대의 대대장 주홍엽동무는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소유하고 그 어떤 과제든지 막힘없이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유능한 일군이다.

여러가지 건설공법은 물론 전기와 기계부문에도 정통한 그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대대의 수리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변압기와 압축기, 양수기들을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책임적으로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대대를 모든 면에서 쇠소리나는 기준대대로, 전투력이 강한 집단으로 만든 그는 화선의 기관차가 되여 공사에 더욱 드센 박차를 가하면서 건설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해 쉼없이 사색하고 탐구하며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다. 오늘도 청춘의 기백과 활력에 넘쳐 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는 그를 《우리 대대장아바이》라고 존경담아 부르며 모두가 따르고있다.

함경남도려단 정평군대대의 차재춘동무는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는 미더운 정치일군이다.

그는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공세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 돌격대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며 그들과 함께 현장에서 밤낮이 따로 없이 불꽃튀는 건설전투를 벌리고있다. 하여 대대가 1월과 2월 공사과제를 앞당겨 수행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평양시려단 중구역대대의 김주혁동무는 희천발전소 1단계건설때부터 지금까지 수년세월을 하루같이 헌신적으로 일해오는 로력혁신자이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기초굴착과 성토를 비롯하여 크고작은 공사마다에서 그가 발휘하고있는 불같은 열정과 제낄손있는 일본새는 항상 대대의 모범으로, 돌격대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제대군인인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궂은일, 마른일을 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며 오늘도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깨끗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김석철동무

주홍엽동무

차재춘동무

김주혁동무

련속 공격전을 드세게 벌려

희천9호발전소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의 근로자들은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대상건설에서 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열렬한 애국의 인생관을 지니고 오늘의 벅찬 대건설전투에서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가야 합니다.》

희천9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평양시려단에서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련속 공격전을 드세게 벌려 건설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이곳 지휘관들은 방대한 량의 좌안가물막이를 짧은 시일안에 끝낸데 맞게 굴착공사에 설비와 로력을 총집중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모든 돌격대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청천강을 하루빨리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불타는 애국심과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만경대구역대대의 기능공들은 해당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종전보다 작업능률이 훨씬 높은 착암설비를 받아들여 매일 맡은 굴착과제를 1.3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이에 발맞추어 선교, 력포, 룡성구역대대의 돌격대원들이 버럭처리를 불이 번쩍나게 다그치고있다. 모란봉, 대동강, 중구역대대와 강동군대대의 전투원들도 착암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굴착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려단의 보배덩이로 떠받들리고있는 락랑구역대대의 유능한 발파공들이 하루 최고 1 500여개의 발파구멍들에 대한 장약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진격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제끼고있다.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속에 압축기와 양수기들을 만부하로 돌려 굴착공사를 더욱 다그치기 위한 사업이 따라서고있으며 콩크리트치기의 첫시작부터 지난해의 최고실적을 돌파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가 빈틈없이 갖추어지고있다.

지금 평양시려단의 돌격대원들은 굴착 및 버럭처리를 더욱 다그치고 주요수력구조물공사를 장마철전에 기본적으로 해제끼기 위한 련속공격전에 드센 박차를 가하면서 건설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높아가는 지원열의

성, 중앙기관과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물심량면으로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재정성과 국가검열위원회의 일군들은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올해 중요건설대상의 첫자리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종업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켜 성의껏 마련한 각종 후방물자와 생활필수품들을 준비하여가지고 건설장을 찾아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제기일에 기어이 끝내줄것을 절절히 부탁하였다.

룡해운성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발전소건설장을 찾아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적극 북돋아줌으로써 그들이 하루빨리 청천강을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에 산악같이 떨쳐나서도록 고무해주었다.

또한 식료일용공업성의 책임일군들은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시대정신, 제2의 희천정신창조의 불길높이 새로운 위훈을 떨쳐가고있는 희천용사들을 힘있게 고무해줄 열의밑에 각종 지원물자들을 안고 건설장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으며 내각사무국의 일군들도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수송단위 전투원들을 찾아 지원물자를 넘겨주면서 그들을 힘있게 고무해줌으로써 물동운반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떠밀어주었다.

한편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발전소건설자들의 투쟁열의를 더욱 북돋아줄 일념안고 청천강반으로 달려와 자신들의 애국충정의 열도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청천강반에 함남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다

함경남도려단 전투원들의 투쟁위훈

희천11호발전소건설장이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종전에 비해 최고 3배이상의 공사속도 창조!

—한주일동안에 1만여㎥의 굴착과제 수행!

이것은 함경남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뜻깊은 2월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발전소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총돌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이룩한 자랑찬 성과이다.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질풍같이 내달려 단숨에 창조한 이 눈부신 위훈은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킨다. 하다면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의 밑뿌리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가며 장군님의 유훈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합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넘쳐있던 함경남도려단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적과업을 받아안고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걸으시며 지펴주신 함남의 불길이 오늘의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도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자!

신학철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비상히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에 튼튼히 의거하여 방대한 량의 굴착과제를 불과 한주일동안에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 해토계절의 첫시작부터 련속콩크리트치기에 진입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웠다.

대대마다 당원결사대, 청년전위결사대가 무어졌다. 대대별, 중대별사회주의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속에 취사원들을 비롯한 보장부문 성원들도 앞을 다투어 야간전투에 뛰여들었다.

륜전설비들의 기동이 불리한 구간에서는 려단전투원들이 증설한 광차운반계통이 큰 은을 내였다.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식사시간마저 아까와 버럭을 나르며 주먹밥을 먹었고 말뚝잠을 자면서도 공사장을 뜨지 않고 완강한 결사전을 벌리였다. 새 신발이나 작업장갑이 하루도 못 가서 터져나간 때는 그 얼마였으며 손맥이 없어 배낭끈을 풀어 맞들이와 어깨를 련결하고 버럭을 져나른적은 또 몇번이였던가.

《정말이지 우리에게는 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오직 함남의 정신, 함남의 본때그대로 한몸이 육탄이 되여서라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만이 차고넘쳤습니다.》

오늘도 그때를 돌이켜보며 덕성군대대의 박일현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함경남도려단의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보통때같으면 엄두도 낼수 없었던 방대한 량의 굴착과제를 한주일동안에 성과적으로 해제끼고 수력구조물들의 콩크리트치기에 진입할수 있는 돌파구를 통쾌하게 열어제끼였다.

그렇다. 혁신의 밑뿌리,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사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시대앞에 높이 내세워주신 함남사람들답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억세게 받들려는 고결한 충정과 결사관철의 정신력, 헌신적인 투쟁기풍이 이렇듯 자랑찬 결실을 안아올수 있었던것이다.

오늘도 함경남도려단의 미더운 돌격대원들은 또다시 신들메를 바싹 조이며 장마철전으로 주요수력구조물들의 콩크리트치기를 질적으로 수행할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전투장마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남조선에서 악의 원흉을 하루빨리 몰아내야 한다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는 어언 70년을 가까이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나라의 통일을 그토록 열렬히 갈망하고있지만 21세기의 오늘까지도 민족의 세기적숙망은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 민족분렬정책때문이다.

미국의 날강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국통일과 민족단합을 가로막는 엄중한 장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입니다.》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산생시킨 화근이다.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진것은 민족내부에 그 어떤 대립이나 갈등이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나날 하나의 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어온 세계에 보기 드문 단일민족이다. 혈통으로 보나 력사와 문화로 보나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질 그 어떠한 리유도 없었다. 우리 민족이 분렬된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지배야망때문이다.

지난 세기 중엽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은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 일떠섰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야망으로부터 출발하여 제멋대로 우리 강토에 인위적인 분계선을 그어놓고 일제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면면히 이어오던 단일민족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명맥을 끊어놓은 인류사상 최악의 반인륜적만행이고 극악한 범죄였다.

우리 나라를 분렬시킨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패권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조선반도에서 한차례의 전쟁을 일으켰으며 전후에는 《남침위협》설을 요란하게 광고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영구강점을 합리화하였다. 또한 《호상방위조약》을 비롯한 각종 협정들을 조작하여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더욱 철저히 거머쥐고 침략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교활하게 회피해왔다. 남조선을 북침을 위한 전략적교두보로 틀어쥐고 새 전쟁도발책동에 끊임없이 매달리면서 전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침략정책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지고있다.

랭전이 종식되고 자주와 독립이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21세기에 와서도 미국은 불법비법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면서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불순한 기도를 버리지 않고있다. 얼마전 미륙군참모총장이라는자는 앞으로도 남조선에 대한 《방위공약》을 계속 리행하며 전쟁수행능력을 증진시킬것이라고 떠벌였다. 그보다 앞서 미국방성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하여 하는수없이 륙군병력을 축소할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남조선주둔 미군은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립장을 밝혔다. 이것은 언제까지나 남조선을 틀어쥐고 우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얼마나 악랄한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현실은 우리 민족이 분렬되고 새 세기에도 그 력사적비극이 지속되고있는 근원이 다름아닌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에 있다는것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미국이야말로 민족분렬의 원흉이며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기본요인이다.

나라의 평화는 민족의 운명, 조국통일의 전도와 관련된 사활적문제이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통일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으로 틀어쥐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시종일관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면서 끊임없는 군사적도발과 침략책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엄중히 유린하고 핵전쟁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키였다.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할 기도로부터 지난 세기 50년대에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가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국은 그로부터 교훈을 찾을 대신 지난 수십년간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새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발광해왔다. 미국은 지난 60여년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방대한 전쟁장비들을 집중시켜놓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감행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항시적으로 격화시키였다.

반제자주,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정치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며 군사적으로 압살하자는것이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근본핵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반공화국압살책동은 최근시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지금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그 무슨 《위협》과 《도발》로 광고하면서 반공화국핵소동과 제재, 압력책동의 도수를 최대로 높이고있다. 한편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수많은 해상무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로 몰아가고있다. 지어 없는 사실까지 날조해가면서 우리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미친듯이 매달리고있다. 최근 미고위당국자들이 줄줄이 나서서 그 무슨 《악의 나라》니, 《사악한 곳》이니 하고 게거품을 물고 우리를 헐뜯어댔으며 국제무대에서 그 누구의 《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며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을 깎아내리려고 발악하였다. 미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적대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평화는 엄중히 위협당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면서 조국통일위업의 전진을 가로막는 악의 정책이다.

우리 공화국은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 최근에도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숭고한 의지로부터 출발하여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대범한 조치를 먼저 취하였다. 우리의 이런 주동적인 노력으로 하여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의해 또다시 파괴되고있다.

력사적으로 미국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해왔다. 미국은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문제에 제멋대로 간섭하면서 긴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였으며 남조선당국을 동족과의 대결에로 극구 부추기였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이후 북남관계에서 놀라운 사변적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기운이 급격히 고조되자 당황망조한 미국은 《남북관계의 진전속도를 조절》하라느니, 《승인을 받아야 한다.》느니 하고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면서 북남협력사업들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한편 남조선과의 《동맹》강화를 꾀하면서 북과 남사이에 쐐기를 박으려고 책동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북과 남이 고위급접촉을 진행하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실현하는 등 관계개선의 길에 나서는 기미가 보이자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긴 미국은 북침전쟁연습의 총포성으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해치는 한편 고위관리들을 내세워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화전량면전술》이니 뭐니 하고 걸고들면서 남조선당국이 대화와 협력에 나서지 못하도록 뒤다리를 잡아채고있다. 지난 2월 북과 남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있을 때 조선서해상공에 《B-52》핵전략폭격기편대를 투입하여 폭격연습을 벌려 그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것도 미국이다.

미국이 반통일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각방으로 가로막고있기때문에 북남관계는 고초를 겪고 근본적인 전진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다.

우리 민족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자면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로막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부터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미국의 침략적이며 반통일적인 정책을 똑바로 꿰뚫어보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은 정 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15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처하여 조선국방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국방위원회는 성명에서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초래할 파멸적후과에 직면하기 전에 스스로 부당한 모든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철회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조선국방위원회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조선의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천명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로, 미국은 더 늦기 전에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모든 조치들을 전면철회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둘째로, 미국은 조선의 핵억제력에 대한 똑바른 견해와 립장을 가지고 《선 핵포기》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근간》이라고 함부로 떠벌이지 말아야 한다.

조선의 핵억제력은 결코 대화에 목이 메고 관계개선에 현혹되여 써먹을 거래수단도, 흥정물도 아니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계속되며 그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조선의 추가적인 조치들도 련속 있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셋째로, 미국은 새로운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일환으로 벌리기 시작한 조선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권》소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할것이다.

미국은 남의 집안일에 대해 횡설수설해대기 전에 제 처지를 알아야 한다.

성명은 끝으로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고 현실적인 새 정책을 수립하는것이 미국의 국익은 물론 본토의 안전을 담보하는데도 유익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 홍콩 봉황위성TV방송, 홍콩신문 《사우스 챠이나 모닝 포스트》,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이란의 파르스통신, 프레스TV방송, 라지오방송, 이딸리아의 인터네트통신 크리온라인, 우루과이 쎄.에끼스36라지오쎈떼나리오방송, 일본의 교도통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브라질주체사상연구쎈터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조선국방위원회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립장 천명》 등의 제목으로 국방위원회 성명을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 년차총회 진행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 년차총회가 2월 28일 아바나에서 진행되였다.

총회에는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 위원장 오베르또 싼떤까쎄레스, 꾸바 제인민간의 친선협회 부위원장 알리씨아 꼬레데라를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림시대리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총회에서는 지난해사업을 총화하고 올해활동계획을 토의하였다.

총회에서 발언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널리 소개선전하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전국협의회 진행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2014년 전국협의회가 동일본과 서일본에서 진행되였다.

8일 총련 가나가와현본부에서 진행된 동일본협의회에는 도꾜, 가나가와, 니시도꾜, 사이다마, 이바라기, 군마, 도찌기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일본에 있는 조선인유골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나갈데 대해 토의하였다.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일본인측 공동대표 데라오 데루미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범죄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일본의 과거력사를 똑바로 정립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조선인측 대표 박구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은 다음해에 조국해방 70돐을 맞이한다고 하면서 일본정부가 하루빨리 조일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해야 할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일본정부가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부당한 민족적차별과 인권침해를 걷어치워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협의회에서는 각지 조사단의 2013년 활동보고가 있었다.

이어 발언한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일본인측 공동대표 하라다 아끼히로는 최근 일본에서 과거를 미화하는 언동이 확대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 력사적사실을 널리 알리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일본협의회는 2월 1일 효고현 아마가사끼시에서 진행되였다.

민주화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설것을 주장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청년련합회, 기독교청년협의회, 천도교청년회 등으로 이루어진 민주수호청년련석회의가 14일 민주화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설것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3월 15일은 리승만《정권》의 부정선거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린된 날이라고 하면서 그때로부터 반세기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남조선에서는 부정선거가 벌어지고있다고 개탄하였다.

현 《정권》이 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주모자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있다고 하면서 정보원이 선거조작도 모자라 통합진보당내란음모사건과 지어 간첩사건까지 조작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집권자가 정치개입과 조작으로 민주화를 짓밟은 정보원 원장 남재준을 당장 해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에서 자살자 증가

6일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있다.

남조선통계청은 2012년 자살자수가 1992년에 비해 3배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10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에 의하면 남조선로인들속에서 자살자들이 늘어나고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남조선에서 65살이상 로인들의 자살률이 최근 4배이상 증가하였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비렬한 간첩사건조작으로 뭇매를 맞는 모략군들

최근 남조선에서 정보원이 감행한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조작책동의 진상이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 야당을 비롯한 각계가 정보원의 해체와 원장 남재준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서울시청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한 인물이 우리 공화국에 들어와 《간첩임무》를 받고 나왔다는 사건이다. 그런데 지난 2월 중순 남조선의 《련합뉴스》와 《CBS》, 《KBS》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은 검찰측이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관련공판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검찰은 사건협의자가 3국을 거쳐 우리 공화국으로 들어간것을 《확인》하는 3건의 문서를 증거로 제시하였는데 3국에서 그 모든것이 다 위조문건이라고 하면서 항의하였다는것이다. 이로 하여 커다란 물의가 일어나자 민주당은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의 증거조작과 관련하여 진실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실시를 강하게 요구해나섰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집권자와 정보원은 침묵하고있고 외교부와 법무부, 검찰은 책임회피에 급급하다고 비난하면서 사건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2월 26일 민주당의 조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3국에서 현지조사를 벌린 결과 3건의 문서가 다 3국의 공식기관을 거치지 않은 비공식적인 개인문서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문서위조에 남조선의 현지령사가 개입되였다고 폭로하였다. 한편 남조선언론들은 사건협의자의 《북출입기록》문서들은 정보원이 현지의 한 동포로부터 입수했다는 증언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CBS》방송은 그런 자료가 정보원에 의해 언론들에 의도적으로 루출되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현지의 동포정보원이 문서를 위조했다면 정보원이 고의적으로 문서를 위조했다는 책임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와질수 있기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자료들에 의하면 현지의 동포정보원이 위조문서를 정보원 직원에게 넘겨주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매일과 같이 폭로되고있다.

《KBS》방송은 지난 3월 4일 검찰조사를 받은 한 남자가 문서위조의 대가로 정보원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자살을 시도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유서에는 로임 600만원과 가짜서류제작비 1 000만원을 정보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씌여져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그가 정보원으로부터 고정적으로 돈을 받아오면서 활동했고 결국 정보원이 증거문서들을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방송은 전하였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조작의 내막이 점차 드러나고 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자 검찰당국은 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문제의 인물들이 해외로 나가는것을 금지시키였다.

《MBC》방송은 정보원이 법원에 제출한 전직 3국공무원의 진술서도 조작된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협의자가 《간첩교육》을 받기 위해 북을 여러차례 오갔다는 진술서를 썼다는 전직 3국공무원은 《MBC》방송과의 통화에서 진술서는 정보원 첩자와 남조선검찰관계자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조선어로 작성되여있었고 자신은 그것을 자기 나라 말로 바꾸어썼을뿐이라고 말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간첩사건조작에 정보원이 총체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있으며 위조문서뿐아니라 증인들의 진술서도 정보원이 작성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있다고 전하였다.

이로 하여 온 남조선이 법석끓고 도처에서 정보원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비발치자 하는수없이 정보원측은 3월 9일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과 관련한 문서위조사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조작에 대해 모르쇠를 하며 침묵을 해오던 현 집권자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남조선언론들은 그러한것들은 책임을 개별적인물들에게 넘겨씌우려는것으로서 진정성이 없는것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원 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지어 리재오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들도 정보원 원장의 사퇴를 요구해나섰다.

지난 11일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 집권자가 유감표명을 하면서도 반성과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은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하면서 정보원 원장의 즉각해임과 특검을 통한 수사, 정보원개혁을 거듭 요구하였다. 민주당은 남재준해임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임요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도 정보원이 거짓증거를 조작하여 간첩사건을 날조해낸데 대해 규탄하면서 정보원 원장의 구속을 주장하였다. 한편 《새누리당》 대표는 검찰수사를 먼저 지켜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야당들의 요구를 완고하게 거부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기자는 지난해의 《대통령》선거당시 북남수뇌상봉담화록내용을 짜맞추어 공개하고 야당후보를 《종북》으로 몰아대는 등 중앙정보부시절부터 지금까지 온갖 모략과 사건조작에 매달려온 정보원을 준렬히 폭로단죄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 집권자가 정보원을 계속 비호두둔한다면 자기 심복의 총에 맞아죽은 《유신》독재자의 운명에 처할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현 《정권》이 이번에도 정보원을 비호하며 사건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여론조작 등을 일삼고있다고 하면서 모략의 소굴인 정보원을 해체하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다가온 지방자치제선거도 부정선거로 될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평하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당국이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조작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며 모략과 인권말살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정보원을 당장 해체할것을 강하게 요구해나서고있다.

본사기자 김 현 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내화종이 개발

중국에서 유연성이 높고 1 000℃이상의 높은 온도에도 견딜수 있는 내화종이를 개발하였다. 이 내화종이는 일반종이와 같은 가공원리를 가지지만 쓰이는 재료가 다르다고 한다.

내화종이는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정보를 기록할수 있으므로 중요한 서류나 공문서 등을 오래동안 보존하는데 적합하다. 또한 버림물속의 유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재생가능한 흡수제, 뼈의 수복재료, 의료용종이, 연소방지재료, 내온재료 등으로도 리용될수 있다.

알루미니움생산 증대

이란에서 지난해 3월 21일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첫 11개월동안에 알루미니움피생산량이 32만t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4%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최근 이 나라 파르스통신이 이에 대해 전하였다.

목재와 그 가공품 수출 증대

웰남에서 올해 첫 2개월동안에 목재와 그 가공품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 증대되였다. 4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인플레률 감소

필리핀에서 2월에 인플레률이 1월의 4.2%로부터 4.1%로 감소되였다. 5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뎅구열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

피지에서 7일 뎅구열피해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깜빠니야를 개시하였다. 4주일동안 진행되는 이번 깜빠니야에서는 뎅구열비루스를 퍼뜨리는 모기를 박멸하고 그 서식지를 없애는데 주되는 힘을 넣게 된다. 또한 주변환경을 깨끗이 거두고 환자들이 제때에 치료를 받을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된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9 825명의 뎅구열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심각한 경제형편, 높아가는 비관의 목소리

에스빠냐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말미암아 1월에 3 278개의 기업체가 파산당하였다.

11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아일랜드에서 지난해 4.4분기에 국내총생산이 그 전분기에 비해 2.3% 감소되였다. 13일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미국에서 2월에 예산적자가 약 1 935억US$에 달하였다. 13일 미재무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일본인들속에서 나라의 경제형편에 대한 비관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12일 일본내각부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2월에 경제형편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를 나타내는 소비자신용지수가 1월에 비해 1.2점 떨어져 련속 3개월째의 감소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소기업체들에서 경제형편에 대해 비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11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는 2월에 경제형편에 대한 중소기업체들의 견해를 보여주는 지수가 그 전달보다 2.7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극도의 오만성이 낳은 악습

《미국은 민주주의를 추진시킨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불리한 견해와 당들, 사람들을 없앰으로써 저들에게 고분고분하는 사람들이 정권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다. 진보적인 개혁을 진행하려고 시도한 국가라면 미국의 간섭을 피하지 못하였다.

…

제2차 세계대전말이래 미국정부가 전세계적으로 합법적으로 선거된 50여개의 정부를 전복하고 50여명의 정치지도자들을 살해하였으며 30여차례나 민족독립운동을 압살하려 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어느 한 나라에서 진행된 미국의 내정간섭을 폭로하는 도서소개식에서 나온 말이다.

력대적으로 내정간섭과 정권전복책동을 일삼으며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인류에게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다준 미국의 어지러운 행적을 폭로한 발언이라고 할수 있다. 실지 그렇다. 지금까지 미국은 마치도 세상에 저들밖에 없는것처럼 놀아대며 다른 나라들에 대고 이래라저래라 하였는가 하면 고분고분하지 않을 때에는 힘을 사용하였다. 그 대상에는 한계가 없었다.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동맹국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았다. 최종목적은 저들의 말을 잘 듣는 친미정권을 조작하는것이였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으로 하여 제2차 세계대전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였다. 미국은 일부 나라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것을 구실로 무력을 직접 들이밀어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하였다.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지속되였다. 그 수법은 더욱 악랄하고 교활해졌다. 《민주주의》와 《인권옹호》의 간판을 들고 저들의 내정간섭과 침략전쟁책동을 정당화하고있다. 최근년간에 《민주화》의 구실밑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감행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올해에도 정부전복을 노린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는 계속되고있다. 그것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있는 지역이 라틴아메리카이다. 미국은 이곳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있는 베네수엘라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이 나라의 합법적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외교관의 탈을 쓴 첩자들을 파견하여 불순세력들을 규합하고 소요를 일으키면서 불안과 분쟁의 씨를 뿌리려 하고있다.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꼽자면 끝이 없다. 최근에는 중국의 분립주의세력들과의 접촉을 밀접히 하면서 중국의 분렬을 꾀하고있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정권전복책동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비난과 규탄을 받고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자기 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얼마전 반중국분립주의자인 달라이라마를 만난것은 엄중한 내정간섭이며 중국의 분렬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한 공약을 위반한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중국분렬세력을 조종하고 부추기는것을 그만두며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유엔주재 꾸바상임대표는 유엔안보리사회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이 이른바 민간인보호와 평화유지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도전복과 군사적간섭책동에 매여달리면서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위반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베네수엘라외무상은 다른 나라에 폭력을 조장시켜놓고 정부로 하여금 그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고는 이를 구실로 그 나라 정부를 비난하는 깜빠니야를 일삼는것이 바로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까밝혔다.

이란최고사법리사회 위원장은 최근 미국무성이 내란음모에 가담한자들을 석방시킬것을 이란에 요구한데 대해 폭로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부추기고 지지한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주권국가인 이란에 대한 미국의 란폭한 내정간섭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먄마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 주재 미국대사관이 먄마북부지역에서의 분쟁문제를 놓고 정부군의 행위에 우려를 표시한다느니 뭐니 하며 시비중상한데 대해 폭로하고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정부전복책동을 일삼는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미국이 국제사회계의 규탄과 배격을 받는것은 지극히 응당하다.

김 철 룡

대지진의 후과로 수많은 기업체 파산

일본에서 2011년 3월 11일에 있은 대지진으로 수많은 기업체들이 파산되였다. 7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대지진의 후과로 지난 3년동안 1 485개의 기업체가 파산당하였다. 파산된 기업체들이 진 빚은 총 1조 4 627억¥에 달한다고 한다.

총기류범죄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9일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이날 무장한 범죄자가 주에 있는 한 유흥장에 뛰여들어 사람들에게 마구 총질을 하여 3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녀성들에 대한 폭력행위 성행

유럽나라들에서 녀성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성행하여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5일 유럽동맹의 인권단체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현재 동맹성원국들에서 녀성 3명당 1명이 육체적 및 성폭행의 희생물로 되고있다고 밝혔다.

배전복사고

에스빠냐의 북부수역에서 10일 고기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행방불명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41043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